

기도

1. 나의 영적인 병들을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나에게는 어떤 병이 있습니까?
2. '주여 낮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체험한 변화의 역사를 나눠주세요

신앙

38년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38년이 채 되지 않았다. 이 병자는 남들의 인생보다 더 긴 시간을 병자로 지내며 소망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고침 받았다. 그리고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죄로 광야를 떠돌며 출애굽 1세대가 전멸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소망 없어 보이는 광야생활 끝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유일한 참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구역 공과

2023년 2월 5일

주여 낮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찬28장, 268장)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을 참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병들을 깨달아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1절).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1,9절).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이 생명을 누리는 날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8년 된 병자 뿐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오늘날의 주일이 바로 안식일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고침받고 살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처럼 주일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데스다 연못이 자비의 집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2-4절).

‘베데스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은 제사의 제물인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은 이 양문 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연못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 쉬면서 은혜와 말씀을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당시의 베데스다는 더이상 자비와 은혜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4절). 이 전설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자들이 많았고(3절)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과 상처만이 가득했지만, 정작 이 전설로 인해 병자들이 고침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경쟁과 욕심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비로소 참 자비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 교회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참 자비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3,5-6절).

베데스다 연못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적인 병에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맹인이 있습니다(3절a). 맹인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다치기 쉽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보지 못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3절b). 다리 저는 자는 가만히 서 있으면 온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걷거나 뛰면 연약한 다리 때문에 절뚝거리고 좌우로 흔들립니다. 이처럼 영적 다리 저는 자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나 선택의 상황이 오면 좌우로 흔들리거나 자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입니다.

셋째,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3절c). 혈기 마른 자는 몸속에 피가 빠져나와 몸에 힘이 없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들은 믿음은 있지만 은혜를 빼앗긴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기쁨과 만족 없이 억지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의 혈기가 강해져서 세상의 고집과 주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넷째, 오래된 병자가 있습니다(5절). 예수님께서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말하며 고침 받을 소망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7절). 이처럼 영적 오래된 병자는 마음이 무뎠기 때문에 병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예수님의 소망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병든 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서는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깨끗하게 고침받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만나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일을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찾아와 주시는 교회가 바로 참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임을 깨닫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낫고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